

22일 Market Index	
코스피 6417.93 (+29.46)	코스닥 1181.12 (+2.09)
금리 (연이자율) 3.360 (+0.030)	환율 (원/달러) 1478.75 (+10.25)

가격 8배 뛰고 품귀  
삼성·SK  
'낸드' 생산능력 확대  
04



## 중동 發 '오일 쇼크' 전기차 대중화 이끌다

### 누적 등록 100만 시대

미국과 이란 간 전쟁 장기화로 유가가 급등한 가운데 전기차(EV) 수요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국내 전기차 시장은 최근 누적 등록 100만대 시대를 기록하는 등 상승 분위기가 예사롭지 않다. 특히 전기차 구매를 망설였던 소비자들은 연초부터 시작된 전기차 업체의 가격 할인과 엔트리 모델 출시, 유가 상승으로 등의 요인으로 긍정적인 전환점을 맞고 있다. 화재와 충전 인프라 문제 등으로 전기차 캐즘(일시적 수요 정체) 현상이 장기화 조짐을 보였지만 최근에는 선택이 아닌 필수로 굳어지는 국면이다.

### 유가불안·신차확대·가격할인 등 사회초년생·세컨드카 수요 자극 지원금 소진시 판매 유지엔 의문

22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전기차 누적 등록 대수는 지난 15일 100만대를 넘어섰다. 특히 중동 전쟁에 따른 유가 폭등 영향으로 올들어 이달 초까지만 10만대 판매됐다. 지난해의 경우 7월에야 10만대를 돌파했던 것과 비교하면 속도가 비약적으로 빨라지고 있다.

업계에서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따른 고유가 불안과 신차 출시 확대, 가격 할인 경쟁, 정부 지원 정책 등이 맞물리면서 소비자들의 전기차 구매를 이끌었다고 분석하고 있다.

완성차 업체는 과거 프리미엄 전략을 벗어나 보급형 모델을 출시하면서 소비자 부담을 낮추고 있다. 과거 6000만~8000만원대를 형성했던 전기차 3000만~4000만원대로 출시되고 있으며 수입 전기차 업체들의 가격 할인 정책도 이어지고 있다.

기아는 지난 1분기 보급형 모델인 EV3(8674대)와 다목적 모델 PV5(8086대)로 전기차 시장을 이끌었다. 또 테슬라는 모

텔Y의 가격을 지난해 말부터 올해 1분기 사이 최대 1000만원 가량 할인하면서 국내 젊은 소비자들을 공략했다.

이 외에도 현대차 캐스퍼 일렉트릭과 기아 레이 EV는 2000만원 중반대, 기아 EV4는 3000만~4000만원 초반대를 형성하고 있다. 중국 전기차 브랜드 BYD는 아토3와 돌핀을 각각 3000만원대와 2000만원대로 출시하며 가성비 전기차 시장을 이끌고 있다.

국내 픽업트럭 시장을 이끌고 있는 KG모빌리티도 리튬-인산-철(LFP) 배터리를 채택한 가성비 모델을 내놓으며 소비자들의 선택 폭을 넓히고 있다.

이처럼 완성차 업체 간 가격 경쟁과 라인업 확대는 전기차 구매를 망설이던 사회초년생과 '세컨드카' 수요층의 심리를 자극하며 시장 상승의 기폭제가 되고 있다.

다만 정부 지원금이 소진될 경우에도 이같은 상승 기조가 이어질지는 의문이다. 급격한 수요 증가로 일부 지자체의 보조금 1차 물량이 조기 소진되는 사례도 급증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승용차 2만대, 화물차 9000대를 추가 확보하는 등 올해 전체 지급 규모는 승용차 28만대, 화물차 4만5000대, 승합차 3800대로 확대했다.

업계 관계자는 "보급형 전기차 라인업 확대와 유가 상승에 따른 소비심리 변화도 있지만 세계적인 추세를 보면 보조금과 세제혜택 등 정부의 전기차 지원정책이 수요 확대와 시장 성장을 이끄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과거 3월부터 정부 보조금을 지급했지만 올해는 예년보다 두 달 이른 1월에 확정되면서 구매 대기가 집중되는 모습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가 목표로 세운 '2030년 420만대 보급'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전기차 보조금 유지와 충전 인프라 구축을 위한 정책이 기반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metro



서울의 한 전기차 충전소에서 전기차량이 충전하고 있다.



### 2월 출생아 2.3만명... 7년 만에 최대

22일 경기 고양시 CHA의과대학교 일산차병원 신생아실에서 간호사가 신생아들을 돌보고 있다. 출생아 수가 2019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하고 증가율은 역대 최고 수준까지 치솟았다. 출산율도 1년 넘게 상승세를 이어가며 저출생 반동 흐름이 이어지는 모습이다.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6년 2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지난 2월 출생아 수는 2만2898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2747명(13.6%) 증가했다. 2월 기준 출생아 수는 2019년 2월(2만5710명)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증가율(13.6%)은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전년 동월 대비 기준으로 가장 높은 수준이다.

22일 경기 고양시 CHA의과대학교 일산차병원 신생아실에서 간호사가 신생아들을 돌보고 있다. 출생아 수가 2019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하고 증가율은 역대 최고 수준까지 치솟았다. 출산율도 1년 넘게 상승세를 이어가며 저출생 반동 흐름이 이어지는 모습이다.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6년 2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지난 2월 출생아 수는 2만2898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2747명(13.6%) 증가했다. 2월 기준 출생아 수는 2019년 2월(2만5710명)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증가율(13.6%)은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전년 동월 대비 기준으로 가장 높은 수준이다.

/뉴시스

## 5년간 베트남과 교역액 1500억 달러 목표

### 韓-베트남 정상회담 경제 협력·공급망·핵심광물 등 경제·안보 파트너십 한층 고도화

베트남을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사진)은 22일 또 럽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 겸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원전·공급망 협력에 대해 논의했다. 베트남과 한국은 상호 3대 교역국으로, 정부는 2030년까지 교역액 1500억달러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베트남을 국빈 방문해 베트남의 국부로 추앙받는 호찌민 묘소에 헌화하고, 베트남 정부가 준비한 공식환영식에 참석했다. 이후 럽 서기장과 소인수 회담, 확대 회담을 갖고 양국 간 전략적·호혜적 협력을 강화할 방안을 논의했다. 두 정상은 양해각서(MOU) 교환식과 공동언론발표를 통해



정상회담의 성과를 알렸다.

이번 정상회담은 지난해 8월 또 럽 서기장의 방한 이후 8개월 만으로, 양국 간 전략적 경제 협력과 에너지와 공급망, 핵심광물 등 경제·안보 파트너십을 한층 고도화하는 계기가 됐다.

정부는 지난해 기준 945억달러인 양국 교역액 규모를 2030년까지 1500억달러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세운 바 있다. 또 원전, 신도시·신공항 등 인프라 사업에 우리 기업 참여를 지원하고, 에너지 안보 강화 및 핵심광물 등 공급망 안정을 위한 호혜적 파트너십 구축도 이번 방문의 목표다.

이 대통령은 이날 동포간담회에서 "양국은 서로에 있어 3대 교역국이며 한국은 베트남의 최대 투자국"이라며 "방

문 기간 베트남 지도자들을 만나 원전과 인프라, 과학기술 등 전략 분야에 대한 협력을 확대하고, 공급망 안정과 지속 가능한 성장, 기후변화 대응 등 글로벌 과제들에 대해서도 고도의 협력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순방에 앞서 기자간담회에서 "인프라, 원전 등 국가 발전의 핵심 분야에서 베트남과 호혜적, 전략적 협력을 강화해 나가고자 한다"며 "글로벌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에너지와 공급망 안정, 핵심 광물 협력 등 경제안보 파트너십 구축을 위한 소통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청와대는 양 정상이 서로를 '첫 국빈'으로 초청했다는 점에 의미를 부여한다. 럽 서기장은 이 대통령 취임 후 처음으로 한국을 찾은 외국 정상으로, 지난해 8월 국빈으로 방한해 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다. /서예진 기자 syj@

## SR·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고객만족도 '매우 미흡'

재경부, 공공기관 186곳 조사  
평균점수 89.2점, 전년비 1.3점 ↑  
미흡 20곳 등 절반이상 보통이하

고속철도운영사인 SR과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매우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조사 대상 총 186개 기관 가운데 '매우 미흡' 단 2곳에 이름을 올린 것. 이 밖에 '미흡'이 20곳, '보통'이 84곳 등으로 여전히 절반 이상이 보통 이하의 수준에 머물렀다. 이번 조사 결과는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도 반영된다.

22일 재정경제부가 발표한 '2025년도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공공서비스 품질이 전년도와 비교해 수직상 개선된 모습을 보였다. 평균 점수가 89.2점으로 전년(87.9점) 대비 1.3점 올랐다.

고객만족도 조사는 20개 공기업, 54개 준정부기관, 112개 기타공공기관 등 186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재경부는 이번 조사에서 제도의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 기존 3등급(우수·보통·미흡) 체계를 5등급(매우우수·우수·보통·미흡·매우미흡)으로 세분화했다.

등급별 기관 수는 ▲매우우수 12개 ▲우수 65개 ▲보통 84개(45.2%) ▲미흡

20개(10.8%) ▲매우미흡 2개(1.1%)로 집계됐다. '매우우수' 등급을 받은 기관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한국석유관리원, 축산물품질평가원, 한국환경공단,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한국관광공사, 한국농어촌공사 등이다. 이에 반해, SR과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은 '매우미흡' 등급이라는 오명을 썼다.

재경부는 '미흡' 이하 22개 기관에 대해, 주무 부처의 책임하에 근본적인 원인을 분석하고 구체적인 서비스개선 계획을 수립하도록 시정조치를 요구할 방침이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metro

## 메트로 한줄뉴스



▲조국, 2차 교통공약 발표... "평택 버스 노선 전면 개편" /사진 뉴시스  
▲야당 "여당, 부산글로벌허브법 재설계? 부산 우롱하나"

▲송언석 "장기보유특별공제 폐지 신호 철회해야... 선거 후 세금 폭탄 불안감 시장 지배"  
▲국힘, 문화예술계 낙하산 인사 비판... "황교익·서승만 임명은 코믹호러물"

▲광주 찾은 문재인 전 대통령, 강기정 시장과 무등산 산행  
▲'장동혁 패싱론' 확산... 국힘 후보들 독자 선대 위 속속 꾸러